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32

요나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요 나 Jonah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4:2b)

כִּי יָדַעְתִּי כִּי אַתָּה אֱלֹהֵי חַנּוּן וְרַחוּם אַרְךָ
אֲפִים וְרַב־חֶסֶד וְנָחַם עַל־הַרְעָה:

요나 차례

요나 서론	〈9제〉	305
제 1 장 불순종한 요나	〈24제〉	308
제 2 장 기도하는 요나	〈15제〉	315
제 3 장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하다	〈10제〉	319
제 4 장 요나의 불평과 박 넝쿨을 통한 교훈	〈12제〉	322

요나 특별 자료 차례

요나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307
제 1 장 〈화보 자료〉 요나를 삼키려는 물고기	314
제 2 장 〈연구 자료〉 니느웨(Nineveh)	318
제 3 장 〈본장의 요절〉	321
제 4 장 〈본장의 요절〉	325
제 4 장 〈화보 자료〉 박 넝쿨 아래 앉아 있는 요나	326

요나 서론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는 요나의 행적에 관해 기록되어 있지만 요나가 저자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2) 그러나 요나가 겪은 일에 대해서 요나가 저자가 아닌 이상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기는 어렵다.
(3) 또한 본서 전체에서 3인칭으로 등장하는 요나가 2장의 기도문에서는 '내가', '나를'이라는 단수 1인칭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나가 등장 인물이며 또한 저자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본서의 저자는 여로보암 2세(B. C. 782-753) 때 활동하였던 아밋대의 아들 요나로 알려져 왔다.
(5)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입장이나 본서의 기록을 고려해 볼 때 본서의 저자는 요나가 확실하다.
(6) 따라서 본서의 명칭도 저자의 이름을 따라 요나서(書)라고 붙여졌다.

2.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는 B. C. 8세기 초반으로 보여진다.
(2) 그것은 요나가 B. C. 782-753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 당시 활동한 선지자였기 때문이다(왕하14:25).
(3) 또한 본서에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B. C. 700년경 산헤립(Sennacherib, B. C. 705-681)이 확장하여 앗수르의 수도로 삼은 이래(참조, 왕하19:36;사37:37) B. C.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함락될 때까지 앗수르의 수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다.
(4) 그러나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갈가'가 앗수르의 수도였으며 니느웨는 '큰 성읍'(1:2;3:3)으로 주변의 몇몇 도시와 함께 수도 행정을 관할하였다(참조, 창10:11,12).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니느웨가 앗수르의 수도로 되었던 B. C. 700년 이전임이 확실하다.
(5)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슈르단 3세(Ashurdan III, B. C. 771-754)로서 그가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니느웨가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 즉 B. C. 765년에 발생한 역병과 B. C. 763년의 일식 그리고 B. C. 763년에 다시 발생한 역병 때문이었다.
(7)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를 마지막 역병이 발생한 B. C. 763년과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이 끝나는 B. C. 753년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 요나는 어떤 인물인가?

- ㉢ (1)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가드헤벨 출신의 선지자였다(1:1;왕하14:25).
(2) 히브리인의 전승(傳承)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가 살려 준 사렘다 과부의 아들이었으며(왕상 17:17-24) 엘리사가 예후(B. C. 841-814)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보냈던 그 소년(왕하9:1-6)이라고도 전한다.
(3) 그의 이름은 '비둘기'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 (4) 그의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맞아 세력이 회복되던 기간이었다.
- (5) 한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선포하면서도(3:1-3) 하나님을 이방인과는 전혀 관계 없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보았던 고집과 불순종의 인물이었다(1:2,3;4:1-3).
- (6) 뿐만 아니라 그는 열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연약한 인물이었다(4:8).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문제가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4:10, 11).

4.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첫째, 변증적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즉 심판의 예언이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참조, 렘18:7이하).
- (2) 둘째, 교훈적 목적으로 쓰여졌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당신께 대한 경외심과 회개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 (3) 세째,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 (4) 네째, 이방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이스라엘에게 그 국가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 (5) 다섯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5.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본서의 주제가 된다.
- (2) 즉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지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주야의 고난을 주시므로 그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서의 주제이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무덤에서 3일간을 머물게 하다가 부활케 하시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게 할 것을 상징한다.

6. ㉠ 본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택한 일군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하고 있다.
- (2)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스블론 땅 뿐 아니라 그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 (3) 세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큰 폭풍과 물고기 등을 사용하셨듯이 자연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훈한다.
- (4) 네째,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먼저 경고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회개할 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 (5) 다섯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선교지일지라도 놀라운 복음의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7. ㉠ 본서의 역사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성경에서는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다.
- (2) 첫째,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살았던 확실한 역사적 인물이었다(왕하1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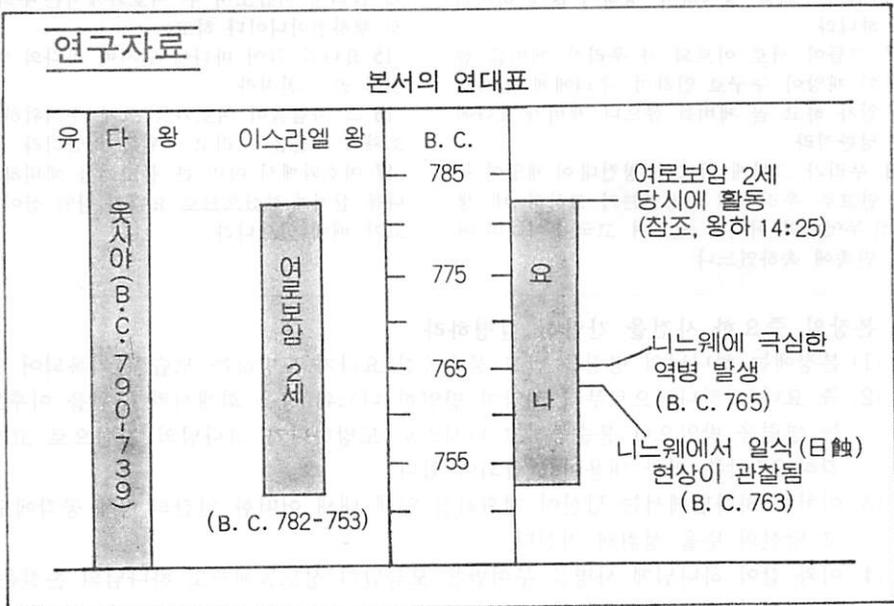
- (3) 둘째, 본서에 나타난 욕바나 다시스, 니스웨 등이 그 당시 실재했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져 있던 성읍들이었다(1:3).
- (4) 셋째, 본서의 문체가 단순한 역사적 전기적 서술체로 기록되었다.
- (5) 넷째, 예수께서도 요나의 행적이나 니스웨 백성의 집단적 회개 운동을 사실로 인정하셨다(마12:39-41).
- (6)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요나가 실제 인물이며 본서의 모든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8.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도망하는 요나 / 1:1-17
- ① 이유 / 1:1,2
 - ② 도망하는 길 / 1:3
 - ③ 결과 / 1:4-17
- (2) 기도하는 요나 / 2:1-10
- ① 요나가 드린 기도의 성격 / 2:1-9
 - ② 기도에 대한 응답 / 2:10
- (3) 설교하는 요나 / 3:1-10
- ① 하나님의 명령 / 3:1-3
 - ② 설교의 내용 / 3:4
 - ③ 설교의 결과 / 3:5-10
- (4) 요나의 새로운 각성 / 4:1-11
- ①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불평 / 4:1-3
 - ②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 / 4:4-11

9.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仁愛)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4:2).



제1장 불순종한 요나

단락구분 1-3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다 / 4-6 요나를 태운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다 / 7-10 제비에 뽑힌 요나 / 11-15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다 / 16-17 요나가 3주야를 고기 뱃속에 처하다

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7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8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 자기가 여호와와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1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3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들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14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한 요나가 도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고기 뱃속에 갇혀 3주야를 거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 어떠한 인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히 실 것이다(참조, 욕10:7; 행20:24).

2. **Q** 여호와와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1절)

A (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2) 여기에서 ‘아밋대의 아들 요나’라는 귀절을 요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왕하14:25).

(3) 이와 같이 요나는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은 자였다.

3. **Q**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는가? (2절)

A (1)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스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다.

(2) 니스웨 성은 둘레가 삼 일 길이나 되는 성읍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하룻길이 약 32km 인것에 비추어 니스웨는 둘레가 96km 정도나 되는 거대한 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3)

(3) 또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어른까지 포함한다면 대단히 인구가 많은 도시였을 것이다(4:11).

(4) 이와 같이 니스웨 성은 비록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들 앞에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다.

4. **Q**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스웨에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절)

A (1) 그것은 니스웨 백성들의 악독(惡毒)이 하나님 앞에 상달(上達)되었기 때문이다.

(2) 여기에 ‘니스웨 백성들의 악독’이란 니스웨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호10:6;나1:14) 전쟁 중에 매우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는 등 그 죄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호11:5, 6).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자 요나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다.

5. **Q**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3절)

A (1) 요나는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2) 여기서 ‘여호와의 낫’이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장소 곧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참조, 창32:30).

(3) 즉 요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니스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사명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다.

(4) 당시 니스웨는 앗수르의 성읍으로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요나가 니스웨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멸망에 대한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참조, 4:2).

(5)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적인 유익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도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을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출14:14).

6. **Q**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갔는가? (3절)

A (1)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위하여 읍바로 내려갔다.

(2) 여기에서 ‘읍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속성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좀더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참조, 시9:15;사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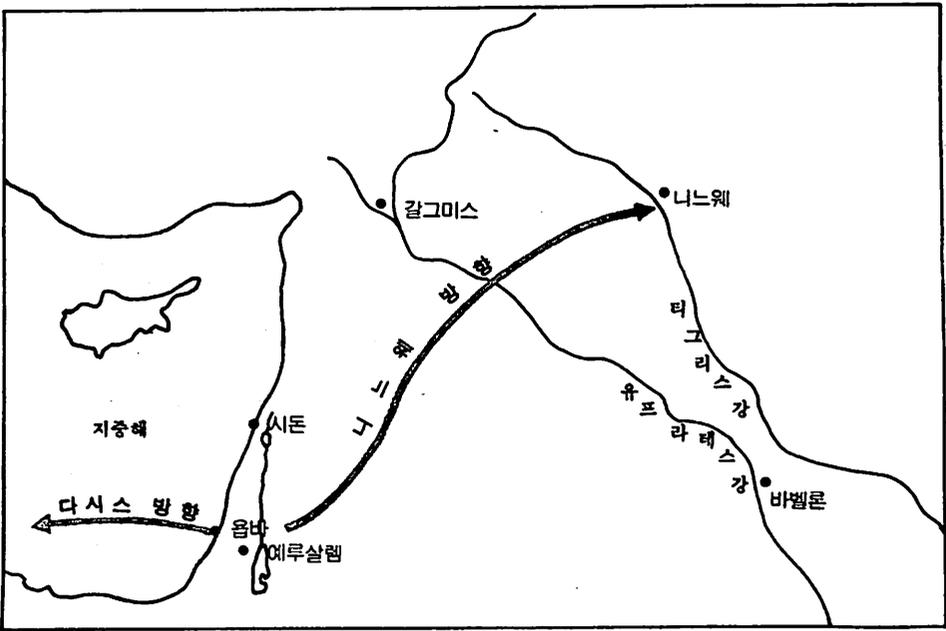
7. **Q**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피하려고 했던 다시스에 대해 설명하라(3절).

A (1) 다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니스웨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었다.

- (2) 즉 다시스는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베니게(Phoenicia)의 식민 도시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해안 도시로서 정교하게 세공된 은과(렘10:9) 철, 상납, 납을 수출하는 항구였다(겔27:12).
- (3) 따라서 요나는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의 힘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리라고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는 데서 면제되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면전(面前)에서 도망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8. ㉠ 니스웨와 요나의 도피로에 관해 설명하라(3절).

- ㉠ (1) 요나가 도피하려고 했던 다시스는 니스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읍바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다.
- (2) 요나의 도피로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9. ㉠ 여호와께서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어떤 자연 현상을 이용하셨는가? (4절)

- ㉠ (1) 여호와께서는 바다 위의 대풍(大風)을 내리심으로 바다 가운데 폭풍이 크게 일어나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대풍'이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자(시104:4),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고에 넣어 두었던(시135:7) 강하고 맹렬한 폭풍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바람을 보내어 요나의 길을 막게 하셨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생활해야 할 성도들이 당신의 말씀에 거역하여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길을 막으실 것이다(참조, 삼상 12:15; 시 68:6).

10. ㉠ 뱃사공들은 폭풍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5절)

- A** (1) 그들은 두려워하여 먼저 각각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 (2) 즉 그들은 자신들의 신 곧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재물들을 미련 없이 바다에 던졌다.
- (3) 바다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폭풍에도 놀라지 않는 선원들이 이처럼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폭풍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께 주신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 11. C** **요나는 폭풍 중에도 배 밑층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였는가? (5절)**
- A** (1)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 (2) 즉 요나는 자신이 탄 배가 바다의 폭풍과 풍랑의 위험을 잘 피하리라 여기고 자기만의 은신처를 찾아 그곳에서 잠에 빠졌다.
- (3) 이와 같은 요나의 행위는 불순종이 죄라는 의식이 흐려지고 그가 이 폭풍과 풍랑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심령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극도로 마비된 죄인들은 마음속의 죄의식까지 묵살해 버리고 만다(롬5:13).
- 12. C** **선장은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질책하였는가? (6절)**
- A** (1) 선장은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질책하였다.
- (2) 요나는 이러한 선장의 책망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니느웨 백성을 책망하고 있을 자신이 오히려 선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선포해야 할 우리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 받는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참조, 벰후2:16).
- 13. C** **선원들은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7절)**
- A** (1)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다.
- (2) 그 당시에는 땅 위에 던지거나 용기에서 뽑는 형식의 제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참조, 욥3:3; 나3:10). 이같이 제비에 요나가 뽑힌 것은 비록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결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의미한다.
- (3) 즉 하나님께서 제비라는 추첨 제도를 통해 당신이 찾고 계신 죄인을 밝히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달음박질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끝내 찾아내시고야 마는 성실한 분이시다.
- 14. C** **요나가 선원들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8,9절)**
- A** (1) 요나가 선원들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말하였다.
- (2) 즉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선포는 여러 신들(gods)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요나가 점차적으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밝혀 준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이 처한 죄악된 환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올 때에 회피하지 말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참조, 왕상8:38; 단9:13).

15. **㉠** 선원들은 요나로부터 그가 도망하게 된 경위를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10절)
- ㉠** (1) 선원들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요나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비난하였다.
- (2) 여기서 ‘심히 두려워 떨면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분이시며 다른 족속들의 신과는 달리 언제든지 보응하실 수 있는 무섭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원들이 깨달았음을 보여 준다.
- (3)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죄인이 탄 이 배를 더욱 심한 풍랑으로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나를 힐난하였다.
- (4) 따라서 이러한 선원들의 비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양심을 그들을 통하여 질책하셨음을 의미한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재 지변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조, 욥 31:23; 시 83:15; 겔 7:18).
16. **㉠** 요나가 제비에 뿔힌 후 바다는 어떻게 변하여 갔는가? (11절)
- ㉠** (1) 바다는 점점 더 흉용(洶湧)하여져 갔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방인 선원들에게 부끄러움당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가 시작한 회개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더 벌하시고자 하심을 나타낸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지자에 대해 감히 형벌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요나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적으로 인도하셨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택하신 당신의 종을 비록 그가 거역할지라도 끝까지 채찍질하셔서 당신이 보기에 합당한 일군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준다.
17. **㉠** 요나는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선원들에게 무엇이냐고 대답하였는가? (11, 12절)
- ㉠** (1) 요나는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대답하였다.
- (2)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완전히 생명을 맡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이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위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내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다(시 37:5; 잠 16:3).
18. **㉠** 사공들이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 ㉠** (1) 바다는 더욱더 흉용하여졌다.
- (2) 왜냐하면 바다에 일었던 폭풍이 사소하게 그냥 일어난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참조, ㉠9) 폭풍으로 그것을 인간들이 거스리려 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자신의 이성과 노력에 매달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무릎꿇을 수밖에 없다.
- (4) 이러한 사실은 인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9. **㉠**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은 선지자 요나를 자기들이 바다에 던져 죽이더라도 자기들의 의사로 죽인 것이 아니니 선지자 요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면케 해 달라는 의미이다.
- (2)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를 물 속에 집어 던져 죽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극도의 이기주의 자들로서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20. **㉠**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은 누구의 결정에 의한 것인가? (14절)

- ㉠** (1)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한 분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선원들의 말 곧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 가운데도 잘 나타나 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인간은 절대로 항거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주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서는 어떠한 항거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다(참조, 대하 20:6; 시 147:5).

21. **㉠**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 ㉠** (1)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풍랑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과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진 풍랑과 시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행할 때 평온을 회복할 수 있다.
- (4) 본질의 말씀은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모진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죄를 자복할 때 평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스 10:11; 단 9:4).

22. **㉠** 뱃사공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행하였는가? (16절)

- ㉠** (1) 뱃사공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 (2) 이와 같이 뱃사공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유는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풍랑을 멎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3) 또한 그들이 '서원'을 한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과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보다 요나가 섬긴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뱃사공들이 개종을 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뱃사공들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저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23. **㉠** 무엇이 바닷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켰는가?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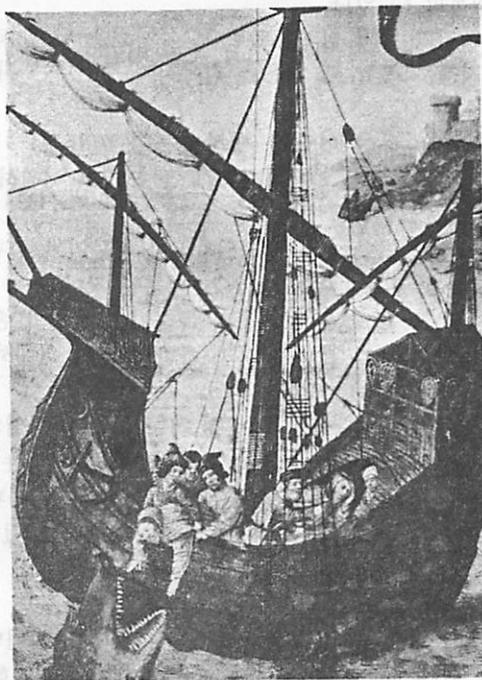
- ㉠** (1)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 (2) 혹자는 '큰 물고기'에 대해 고래나 상어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기인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으로(참조, 창 1:21) 요나가 들어가서 3일 주야를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큰 물고기였다는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떨어질 때 바로 구출할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배 밑에서 준비하여 사용하셨다.
- (4)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신 시간 곧 성도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안해 하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낄 때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을 펼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24. **㉠**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 지내었는가? (17절)

- Ⓐ (1)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삼야(三日三夜) 동안 지내었다.
 (2) 이와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자연 현상을 초월한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3)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고 그곳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시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사 용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2절)을 또다시 기억하게 만드셨다.
 (4) 또한 요나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일로서(마 12:40; 16: 4; 눅 11:29-32)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과 더불어 심판의 심각성을 교 훈으로 얻을 수 있다.

화보자료

요나를 삼키려는 물고기. 프랑스 왕 루이(Louis)의 기도서에 나 오는 삽화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다 시금 물으로 나온 것(2:10)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그 결과 얻게 되는 새 생명의 진리(참조, 행 11:18)를 상기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17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던 사실(참조, 마 27:64)을 생각해 해준다.

제2장 기도하는 요나

단락구분 1-5 요나가 큰 고난과 위험에 처하다 / 6-7 그가 스스로 취한 격려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 / 8-9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다 / 10 요나가 육지에 토해지다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 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 물이 나를 들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찢나이다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나라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린 후 육지에 토하여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모진 고통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고난과 위험에 대한 기도를 드리며,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3) 이러한 요나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 길에 올랐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온전히 본래의 의무의 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 준다.
- (4) 주의 명령을 받은 사역자들은 요나처럼 주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세상 길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다면 즉시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참조, 요16:33; 고전5:10).

2. ㉡ 요나는 어디에서 기도하였는가? (1절)

- ㉡ (1)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한편 그는 2절에서 '물고기 뱃속'을 '스올' 곧 '음부'에 비유하였다. 이런 표현은 현재 그가 있는 '물고기 뱃속'이 사실상 지옥이나 무덤 속같이 나쁜 상황임을 나타내 준다.
- (3)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극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 (4) 이러한 요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주위의 여건과 장소가 기도하기에 부적당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기도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2:7).

3. **㉠**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하였는가? (1절)

㉠ (1)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 (2)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다가 이제는 그 어리석음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4)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사16:12).

4. **㉠**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2-9절)

㉠ (1) 요나가 드린 '기도'는 히브리어로 <팔랄>이며 감사 기도를 뜻한다(참조, 삼상2:1;삼하 7:27).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 (2) 기도문에 사용된 일부 동사들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4,7절)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운 바 되었을 때부터 구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였음을 보여 준다.
 (3)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도망하다가 바닷물 속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구해 주셨기 때문이다.
 (4) 요나의 감사의 기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고통과 역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5. **㉠** 요나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불렀는가? (2절)

㉠ (1) 요나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불렀다.

- (2) 즉 이 말은 요나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올 때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깨닫고 찾았다는 의미이다.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참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함이 필요하다.

6. **㉠** 요나는 누가 자기를 바닷물 속에 던져 넣었다고 하였는가? (3절)

㉠ (1)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하였다.

- (2) 이와 같은 고백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그를 물 속에 던진 선원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바 형벌의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주의 자녀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난에 던져질 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왕상8:38;잠2:5;호4:14).

7. **㉠** 요나는 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하였는가? (3절)

㉠ (1)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파도와 물결이 이는 바다를 그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은 뱃사공들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을 때 그가 뽑혔다는 사실(1:7-10)과 그 후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멎었던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1:15).
 (3)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인들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자연 현상을 이용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 자연 재해가 나타날 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8. **㉠** 하나님께서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 넣으셨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4절)

㉠ (1)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다.

- (2) 그러나 요나는 그런 절망 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소원을 열망했다.
 (3) 이러한 표현은 그가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에

게 쓰임을 받고자 자신을 격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

9. **Q** 요나는 물이 어디까지 들렀다고 하였는가? (5절)

A (1) 요나는 ‘물이 나를 들렀으니 영혼까지 하였다’고 말하였다.

- (2) 즉 이 말은 물이 생명을 위협하였고, 그의 목숨을 절박한 위협에까지 처하게 하였다는 말이다(참조, 욥6:7).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숨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요나를 징계하신 이유는 그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 (4) 또한 그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심으로 모든 구원이 당신의 손길 안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욕심, 자아 등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이 손길이 펼쳐 음을 알아야 한다.

10. **Q** 요나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어디에서 건지셨다고 하였는가? (6절)

A (1) 요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내셨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구덩이’란 셈족 문헌에 있어서 죽은 자의 영역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말이다.
- (3) 그러므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손아귀로부터 요나 자신의 생명을 구출해 주셨다는 말이다.

11. **Q** 요나는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7절)

A (1) 요나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 (2) 즉 이 말은 그가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기도하였음을 의미한다.
- (3)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야말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는 위로자이심을 나타낸다(참조, 사66:13; 고후1:3, 4).
- (4) 그러므로 성도는 평상시에는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야 한다(참조, 약5:13).

12. **Q** 누가 요나의 역경 중에 드린 기도를 들으셨는가? (7절)

A (1)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 (2) 여기서 ‘성전’이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참조, 시18:6).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요나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비록 자신이 성전에서 멀리 떠나 고통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다.
- (4) 이처럼 성도가 역경 중에 낙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열납될 것이다.

13. **Q**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무엇을 버렸다고 하였는가? (8절)

A (1) 거짓되고 헛된 것, 즉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참조, 신32:21; 미6:16).

- (2) 여기서 ‘베푸신 은혜’란 히브리어로 ‘자비’, ‘그들의 선’이라는 뜻을 지닌 〈하세담〉인데 모든 사람에게 선택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시144:2).
- (3) 그러므로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 되시며 최고의 선이 된다는 사실을 거부한 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외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을 가리킨다(참조, 렘 2:5, 13).

14. **㉠**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무엇을 주께 갚겠다고 하였는가? (9절)
- ㉡** (1) 요나는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서원이란 감사를 통해서 오며, 감사는 언제나 값진 선물을 받음으로써 생겨지는 기쁨의 표현인 것이다.
 (3) 그러므로 요나가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하여 주께 서원한 것이 있을 때 잊지 않고 지켜야 한다(시 50:14).
15. **㉠**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물고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으로 토해 내었다.
 (2) 이러한 사실 곧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실이나 물고기가 요나를 정확히 해안에 토해 낸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닐 수 없다.
 (3) 한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한다(마 12:40).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음부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시 16:10)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롬 6: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료

니스웨(Nineveh). '니스웨'란 명칭은 메소포타미아의 다산(多産)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 '이쉬타르'(Ishtar)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도시가 큰 성읍(1:2)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도시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티그리스 강에서 동쪽으로 약 0.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일개의 성읍에 불과하였던 이 도시는 B. C. 700년경 산헤립(Sennacherib, B. C. 705-681)에 의해 앗수르의 수도가 되었다. 니스웨에 대한 성경의 최초 언급은 창 10:11, 12에 나오는데 함(Ham)의 자손인 니므롯(Nimrod)이 앗수르로 나아가 니스웨를 건축하였다고 한다. 이 성읍이 가장 번영하였을 때의 크기는 본서의 기록(3:3; 4:11)처럼 인구 12만 명, 성읍 전체를 여행하는 데 사흘 길이 걸릴 정도의 넓이에 달했음이 점차적인 발굴 작업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여기서 '사흘 길'은 약 96km의 거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니스웨도 B. C. 612년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바벨론 역대기에 의하면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은 단번에 황폐화되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니스웨에 대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로서 요나 외에도 나훔과 스바나(습 2:13)가 있다.

제3장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하다

단락구분 1-2 요나가 하나님의 두번째 부르심을 받다 / 3-4 니느웨에서 설교하다 / 5 니느웨 성이 회개하다 / 6-9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하다 / 10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다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 길이라

4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배를 입은지라

6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7 왕이 그 대신으로 너붙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 하나님이 후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두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자 니느웨 왕과 온 성이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가 금식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빌 2:12).

(4) 이처럼 멸망받을 위치에 서 있는 자가 진정으로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참조, 시 34:18; 사 38:20; 엡 2:8).

2. ㉠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번째 부르셨을 때 왜 책망치 않으셨는가? (1, 2 절)

㉠ (1) 요나가 이미 풍랑 속에서,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과거의 잘못을 기억지도 않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히 8:12).

(3) 그러므로 과거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며 기억치도 않으실 것이다(사 43:18, 25).

3. ㉠ 니느웨는 어떠한 성읍이였는가? (3 절)

㉠ (1)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 이었다(참조, 1 장 ㉠ 3).

(2) 즉 니느웨는 외곽 지대를 포함해서 성의 둘레가 3일 길(96km)이나 되는 거대한 성이

었다.

- (3) 또한 이 성안에는 죄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었고 또 많은 육축도 있었다 (4:11).
- (4) 이와 같이 니스웨는 규모가 거대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이 있었던 큰 도시였다.

4. **㉠** 요나가 니스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4절)

- ㉠** (1) 요나는 니스웨에 들어온 첫날부터 백성들에게 니스웨가 40일 후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 (2) 즉 이 말은 니스웨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선포한 것이다.
- (3)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는 첫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던 모습 (1:3)과는 달리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보여 준다.
- (4) 또한 앗수르의 성읍인 니스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멸망의 선포를 외쳤다는 사실은 그가 담대한 심령으로 주장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5. **㉠** 니스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후 어떻게 행하였는가? (5절)

- ㉠** (1) 니스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후 금식을 선포하며 무른 대소하고 굶은 배를 입었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라는 표현은 니스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진리를 믿었음을 의미한다(참조, ㉠ 6).
- (3) 또한 ‘금식’ 과 ‘굶은 배를 입었다’ 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적극적으로 회개하였음을 가리킨다(참조, 왕상 21:27; 욥 1:13, 14).
- (4)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형벌을 받게 된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 ‘니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이 귀절의 의미는 니스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의뢰했다는 말이다.
- (2) 왜냐하면 ‘믿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만>으로서 ‘의뢰한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참조, 고전 15:58; 엡 1:1).

7. **㉠** 니스웨 왕은 요나의 설교에 대한 소문을 들은 후 어떻게 행하였는가? (6절)

- ㉠** (1) 그 소문을 들은 니스웨 왕은 곧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朝服)을 벗고 굶은 배를 입으며 재에 앉았다.
- (2) 여기에서 ‘굶은 배’ 이란 매우 거칠고 색깔이 어두워서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옷으로서 슬픔과 회개에 대한 상징이다.
- (3) 그리고 ‘재에 앉았다’ 는 말은 매우 겸비한 마음을 상징하는 행동으로서 그 자신의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참조, 욥 2:8; 미 1:10).
- (4) 그러므로 당시 세력이 강대했던 이 도시의 왕이 단지 ‘소문’ 만을 듣고도 겸손하게 회개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말에 힘을 불어넣으셨음을 나타낸다.
- (5)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교훈을 귀중히 여기며 그 교훈에 비추어 과거의 죄악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여야 한다(참조, 행 17:13).

8. **㉠** 니스웨 왕이 사람과 모든 육축들에게 내린 조서(詔書)는 무엇인가? (7, 8절)

- ㉠** (1) 니스웨 왕은 사람과 짐승 모두가 배움을 입고 금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 (2) 여기에서 짐승에게까지 회개하라고 한 것은 실제로 짐승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니스웨 왕의 철저한 회개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짐승들도 공적 애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 (3) 따라서 왕의 조서는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속의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 (4) 이와 같은 왕의 조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즉 참된 회개란 과거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참조, 골 2:8-10).

9. **㉠** 니스웨 왕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것은 니스웨 왕이 흑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들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두심으로 니스웨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 (2) 니스웨 왕은 회개를 선포할 때 '흑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지은 죄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3) 즉 그는 니스웨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셔야만 비로소 멸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 (4) 따라서 니스웨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과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 (5) 성도들도 회개할 때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 후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 하나님께서는 니스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선 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3) 이처럼 니스웨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보다 그들의 회개를 더 원하셨음을 보여 준다.
-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범죄한 인간들과의 깨어진 관계(참조, 롬3:23)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기다려 주신다(참조, 겔18:23; 딤후2:4 벴후3:9).

본장의 요절

‘니스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배를 입은지라’(5절).

제4장 요나의 불평과 박 넝쿨을 통한 교훈

단락구분 1-3 요나가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불평하다 / 4 여호와께서 조용히 꾸짖으시다 / 5-9 요나가 박 넝쿨이 시들자 성을 내다 / 10-11 박 넝쿨을 비유로 요나를 깨닫게 하시다

- 1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 2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 3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념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 5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시라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던라 요나가 박 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7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라 이른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씹게 하시매 곧 시드니라

8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념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 ㉠ 본장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3:10)에 대하여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비유로 요나를 교훈하셨던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거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무한하고도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사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아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시 18:44; 말 1:11; 요 3:16).

2. ㉠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절)

- ㉠ (1)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데 대하여 심히 싫어 분개하였다.
- (2)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자기의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원수의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의 불만은 마음의 아량이 넓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즉 40일만 지나면 멸망하리라는 그의 선포가 거짓으로 판명함으로써 선지자로서 자기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뻐 하신다(겔 18:23).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악인의 심판보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참조, 눅 6:27, 28).

3. **㉠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 달라고 기원하였는가? (2, 3절)**

- ㉠** (1)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나이다’ 라고 기원하였다.
 (2) 그 이유는 그가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40일이 지나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으므로 거짓 예언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그래서 낙망 가운데 빠진 모세와(11:15), 엘리야(왕상 19:4)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취해 가실 것을 여호와께 기원하였다.
 (4) 이러한 요나의 기원은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한 편협한 기원이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많은 백성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니느웨가 멸망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자기의 체면이 각일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책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 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참조, 요 15:13; 엡 5:2; 요일 4:20).

4. **㉠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노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분개하는 요나에게 ‘너의 성념이 어찌 합당하냐’고 말씀하셨다.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 즉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때문에 요나가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군이 합당치 않게 분노하고 기원한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보다는 오히려 반성을 촉구하고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참조, 대하 7:14).

5. **㉠ 요나가 성밖에 초막을 짓고 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요나가 성밖에 나가서 성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거하였다.
 (2) 그것은 요나가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어 이방인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길 원했기 때문이다.
 (3) 다시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었을지라도 결코 허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른 심판이라도 내려지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4)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예언에 대하여 체면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알팍한 요나의 생각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말았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친하지 않은 형제들이 잘못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같은 행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참조, 눅 6:27-35).

6. **㉠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만든 초막 부근에 무엇을 자라게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박 넝쿨을 자라게 하셨다. 이것은 요나가 만든 초막이 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들어 버렸음을 암시한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내리찍는 태양의 열기로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박 넝쿨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자라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케 해주셨다.

(3) 한편 여기서 ‘박 넝쿨’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카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은 KJV에서는 ‘조롱박’ (gourd)으로, RSV에서는 식물명을 밝히지 않고 ‘초목’ (plant)으로 또한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호리병박’으로, 공동번역에서는 ‘아주까리’로 번역되었다.

7. **㉠**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 넝쿨을 준비시켜 주신 것은 무슨 이유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박 넝쿨을 준비하셔서 내리찍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요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셨다.
- (2) 요나는 자기에게 그들을 제공하는 박 넝쿨이 기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 (3) 왜냐하면 그는 박 넝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느니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징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 넝쿨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박 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당신의 섭리를(10, 11절) 요나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려움을 고하기 전에 먼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다. 따라서 성도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8. **㉠** 요나가 박 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요나는 박 넝쿨이 자라나 그에게 그들을 제공해 주므로 심히 기뻐하였다.
- (2) 이와 같이 요나의 태도는 박 넝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단지 그 박 넝쿨로 인하여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다(참조, ㉠ 7).
- (3) 우리도 때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단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참된 성도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최우선되어야 한다(시 100:4; 살전 5:18).

9. **㉠**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위안을 얻는 박 넝쿨을 어떻게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박 넝쿨을 주신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 넝쿨을 쉽게 하므로 그것이 곧 시들어 버리시게 하셨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요나에게 박 넝쿨의 혜택을 거두어 가신 것은 요나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저버리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 (3)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교훈,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니느웨 백성이 한낱 박 넝쿨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인가를 요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참조, ㉠ 10).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신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도 않고 잘못 사용하면 그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다.
- (5) 그러므로 성도가 이러한 경우를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거둬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자복해야 한다(히 12:5, 6).

10. **㉠** 요나가 죽기를 간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요나는 머리 위에 내리찍는 태양의 열기로 혼곤하여져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다.
- (2) 그를 혼곤하게 만든 ‘태양의 열기’는 하나님께서 해가 났을 때 뜨거운 동풍, 즉 근동 지방에 부는 타는 듯한 열기를 동반한 바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10, 11절).

- (4)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먼저는(1-5절) 니스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지금은(9절) 그가 의지했던 박 넝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몰인정에 대해 성내는 그의 못된 성품을 바로 고치시기 위함이었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참조, 히 12:11).

11. ㉠ 요나는 박 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묻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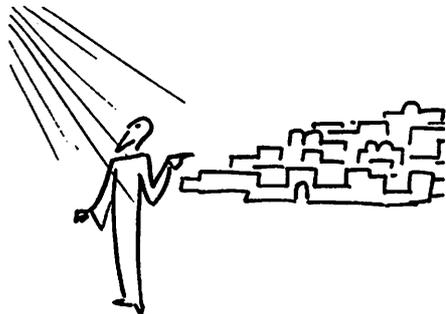
- ㉠ (1)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다' 라고 대답하였다.
- (2)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가 악이라고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충고를 거부한 채 오히려 분노가 악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육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요소들을 제어하며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눅 21:34; 롬 12:2; 딤후 2:12).

12. ㉠ 하나님께서는 박 넝쿨로 인해 불평하는 요나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10, 11절)

- ㉠ (1) 요나가 직접 심거나 키우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 넝쿨을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은 갑자기 박 넝쿨을 키우셨으며 또한 벌레로 하여금 그것을 갉아먹게 하여 마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과 가족이 있는 니스웨에 대한 그의 행동(4:1)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들이 박 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방 백성들도 멸하기 보다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참조, 행 26:20; 롬 11:11; 갈 3:4).
- (5) 또한 니스웨는 죄우를 구분치 못하는 아이들이 12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더불어 무죄한 자들을 죽이시지 않은 분이심을 나타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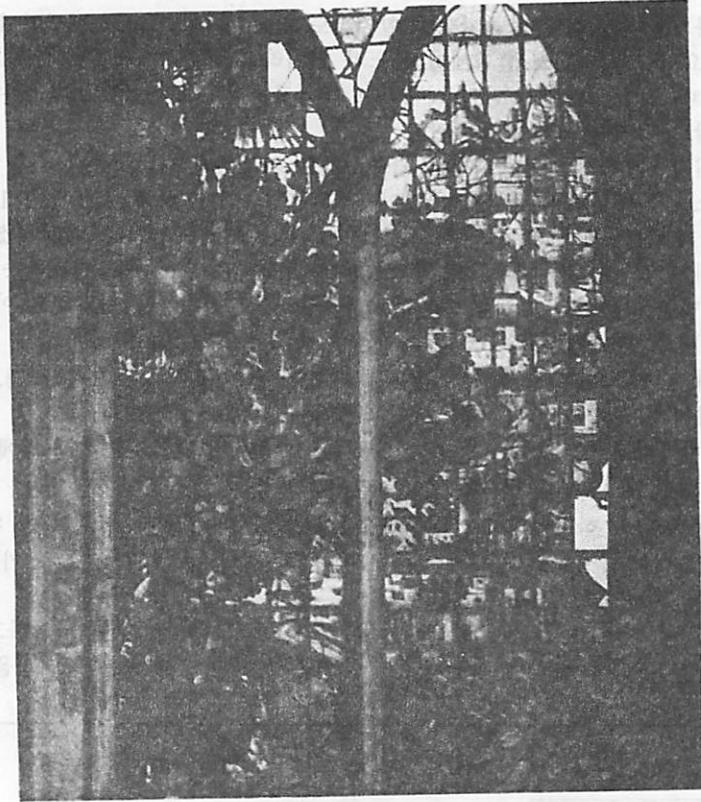
본장의 요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스웨에는
죄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십 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11절).



화보자료

박 넝쿨 아래 앉아 있는 요나. 영국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 Cathedral)의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분장에는 박 넝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교훈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받아 마땅한 이방 백성에게 가서 회개와 권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불만스러운 일이었다(참조, 1:1-3).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난 요나는 박 넝쿨 아래 앉아 그 결과를 지켜보려 하였다(5, 6절).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에 의하여 그 박 넝쿨이 시들어 버리자 요나는 이를 못내 아쉬워하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찮은 박 넝쿨도 아끼거늘 내가 어찌 인생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었다(7-11절).

미 가

Micah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6:8)

הגיד לך אדם מה טוב ומה יְהוָה דֹרֵשׁ מִמֶּךָ כִּי אִם-עֲשׂוֹת
מִשְׁפָּט וְאַהֲבַת חֶסֶד וְהִצָּנֵעַ לְכַת עִם-אֱלֹהֶיךָ: